

# 탈북청소년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

## Suggestion On the Patterns of Science Education in the School Adapt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

박명숙\*·안희수

(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)

탈북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의 남한 학생들에 비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권위나 신념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며, 표현 방식의 차이에 익숙하지 않아 수업내용이나 문제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학습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. 북한과 다른 학교체제와 탈북 과정의 교육 공백기로 인하여 남한의 초·중등학교에 편입될 때에 실제 연령보다 몇 년 아래 학년으로 배정되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여 심각한 학습 부진을 경험하며 그 결과 정규 학교를 포기하게 되므로 남한 사회적응 및 진로선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. 따라서 탈북청소년이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정규학교에 배정되기 전 또는 배정된 이후에라도 계절학교 등의 학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.

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주최하는 탈북청소년의 학업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인 ‘한겨레계절학교’에서 탈북청소년들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. 먼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인 만큼 지구과학, 물리 화학, 생물 등 과학과목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어, 사회, 수학, 영어 등 다른 과목과 과학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 두 번째로 기초 탐구기능을 중심으로 수업과정을 모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. 집중이 가능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수업과정을 통해 짧은 시간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. 세 번째로 탈북청소년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.

주요어 : 탈북청소년, 통합적 접근, 기초 탐구기능, 수업과정 모듈화